초등상담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2012, Vol. 11, No. 2, 219-235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강 영 하†
공주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95명을 대상으로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행복할까요?'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추출을 위한 192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항들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75문항을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하여 이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를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155명에게 실시하였다. 1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6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항을 중심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여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낙천주의,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 자기 존중감, 배려심, 그리고 교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5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으로 학교 행복감 점수의 약 68%를 설명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지수의 값들이 수용기준 충족하여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5개의 요인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 a=.996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과 청소년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의 부분적으로 다른 이유를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행복감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어 : 학교행복, 행복감, 안녕감, 행복교육

---

* 이 논문은 2008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영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Tel : 041-850-1730, E-mail : yhkang@gjue.ac.kr

서 론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권석만, 2008; 이명곤, 2011; 이수정, 안신호, 2005 참조) 근래에는 철학(이명곤, 2011)은 물론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주제가 되었다(박복남외, 2005, 이정헌, 양승훈, 2008). 심리학 분야에서의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60년대 말 Willson(1967, 이수정, 안신호, 2005에서 재인용)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긍정심리학(Compton, 2005; Snyder & Lopez, 2005;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참조)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긍정심리학을 행복에 대한 탐구로 보는 관점(권석만, 2008)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1987)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나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심리적 상태(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영어의 ‘happy’는 우연히 만난 행운을 의미하는 ‘happ’에서 유래되었다(Argyle, 2005).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혹은 ‘삶의 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성보훈, 윤선아, 2010). 이러한 용어들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행복에 대한 사고-쾌락주의(hedonism)와 행복주의(eudemonism)와 관련되어 있다(권석만, 2008; 이명곤, 2011, 이수정, 안신호, 2005).

쾌락주의 관점에서는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인지적 상태로 정의된다. 즉, 쾌락주의 전통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만족을 행복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규정된다. 쾌락주의 전통의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평가로 유쾌한 정서, 낮은 수준의 부정적 기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포함된다(Diener, 200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 Lucas, & Oishi, 2002). 주관적 안녕의 긍정적 정서에는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애정감, 고양감 그리고 환희감이 포함되고, 부정적 정서에는 슬픔,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질투감, 부담감 그리고 죄책감/수치감이 포함된다.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구성요소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도,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견해가 포함된다.

주관적 안녕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삶의 질은 영양상태, 의복, 주거, 교육수준, 사회보장, 근로조건 등을 의미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의미한다(Argyle, 1987, 이수정, 안신호, 2005에서 재인용). 삶의 질 연구자들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혹은 직업, 결혼, 건강과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 심리적 고통 그리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나 노인들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조상 대상에 따라 측정 영역도 다르다. 근래에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Huebner(1994)는 학생의 삶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에는 가족, 친구, 학교, 생활환경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연구들은 행복지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주의에서는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는 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본다. 이러한 행복주의 전통의 행복 연구자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몰입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기능이 건강하고 원활한 상태이다(Ryff, 1989). Ryff와 그의 동료들은(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utte & Ryff, 1997)은 심리적 안녕감이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목적 있는 삶 그리고 개인적 성장의 여섯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1997). 몰입상태에서는 강렬한 주의집중, 행위와 인식의 융합, 자기와 환경 간의 일체감,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감 그리고 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한 자기충족감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몰입 경험과 주관적 안녕 또는 행복은 다른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생활에서 이 둘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통합되어 경험되는 것으로 보인다(Omodei & Wearing, 1990).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보면 행복 또는 행복감이란 개념은 매우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회학(김청송, 2009;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송근원, 이영, 2011)에서는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행복감을 파악하여 행복지수란 용어를 선호하고, 심리학(서은국, 2010; 서은국, 구재선, 2011;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Diener, 2000; Diener, Lucas, & Oishi, 2002 참조)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행복감과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행복 또는 행복감이란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려는 연구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Bradburn(1969)은 행복감을 개인이 체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 평가로 간주하고 개인은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 Veenhoven(1991)은 행복감을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전반적 개념 속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기쁨수준이 포함시키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기 존중감, 통제신념이 포함시켰다.

Averill과 More(1993)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행복감에는 물질적, 신체적 수준의 생활평가 그리고 목표, 이상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평가적 판단이 수반된다고 하면서 행복감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체계, 심리적 체계 그리고 생리적 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체계에서 본 행복감은 특정 사회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목표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회가 만족해하고 사회를 영구히 발전시키는 도덕성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체계는 Maslow가 언급한 생리적 욕구 그리고 심리적 욕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욕구의 충족만이 행복이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 개재하는 투쟁이나 고통도 행복일 수 있다(이훈구, 199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행복감이란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로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정의에는 세 조건, 즉 행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행복감은 사회나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성취했을 때 가지게 되는 경험이다. 사회나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의 예로는 지식과 지혜, 용기, 자애, 절제, 정의, 초월 등을 계발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행복에는 부정적 정서, 즉 슬픔,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질투감, 부담감, 죄책감/수치감보다는 긍정적 정서, 즉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애정감, 고양감, 환희감이 경험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인지적으로 자기, 가족, 건강, 직업, 여가, 재정상태 및 소속집단의 영역에서 과거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가지면서 정체되지 않고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중요한 타인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경험된다.

행복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eehoven, 1994; Kozma, Stone, & Stones, 2000). 이 주장은 학교 행복감이 일반적인 행복감과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행복감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학교 행복감을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 소개된 행복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학교 행복감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로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행복감 연구자들은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행복에 관한 초기 연구자로 평가받는 Wilson(1967, 권석만, 2008, p.101에서 재인용)은 젊고, 건강하고, 잘 교육받고, 돈을 잘 벌고, 외향적이며,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으며, 종교적이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존중감, 직업의욕, 적절한 포부를 지닌 사람이 행복하다고하여 연령, 건강, 교육정도, 결혼,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외향성, 낙천성, 자기 존중감, 의욕, 포부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행복감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또는 심리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Peterson(2006)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행복감과 상관이 낮은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수업정도, 자녀유무, 종족,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 정도),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는 요인(결혼, 종교, 여가활동, 친구의 수, 신체적 건강,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내적 통제소재) 그리고 높은 상관이 있는 요인(직업 만족도, 낙관성, 자존감, 성적 활동의 빈도, 긍정감정의 경험 빈도, 감사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은 여러 후속연구들(구재선, 서은국, 2011; 권명희, 2011; 김경민, 2010, 김연화, 2010; 김정문, 2010; 김청송, 2009;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6; 박영신, 김의철, 2009; 이수진, 2011; 성보훈, 윤선아, 2010; 신정인,

2010; 이명자, 2008, 이우경, 2008; 전경숙, 2010; 전경숙, 정태연, 2009; 최미숙, 2011)을 통하여 지지되고 있다.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행복감과 이들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 제안되었다(Compton, 2005, p.47). 상향이론에 따르면,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람들은 다양한 외적 환경을 개괄하고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감을 평정한다. 즉, 생활에서 유쾌한 순간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한다. 이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질, 일에 대한 만족 정도, 수입정도 등이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향이론은 행복감이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특성, 태도 혹은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행복감이 측정된다.

근래에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하여 관련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통합적 설명 모델이 제안되었다(권석만, 2008, pp.124-129). 이 모델에서는 행복감이 성격요인에 의해 하향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삶의 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상향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행복감은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이 통합되었을 때 행복감은 더 잘 설명된다.

이 모델의 가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은 유전적·심리적·사회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즉, 행복감은 개인의 행복 기준점(happiness set point)(Lykken & Tellegen, 1996)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가족 및 자녀,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 정도 등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삶의 상황) 및 동기, 의지와 같은 의도적 활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의지적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둘째, 이 모델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속 국가, 집단, 가족환경, 유전적 요인, 생의 초기 경험, 성격 특질 등과 같은 원격원인(distal causes)과 최근의 생활사건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이에 대한 의미부여와 대응을 나타내는 심리적 과정 같은 근접원인(proximal causes)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통합모델에서는 행복감이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요인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행복감은 심리적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그 일부이기도 하다.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에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정화(2005)는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는데, 확인된 요인은 가정환경, 자기 존중감, 능력과 대인관계였다.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힌 강영하(2008)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자기 존중감, 친구관계, 낙관주의가 확인되었다. 한편 Compton(2005)은 성인의 행복감 구성요으로 자기 존중감, 대인관계, 지각된 통제감, 외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비교하면 세 연구 모두에서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가 확인되었으나 Compton이 확인한 지각된 통제감과 외향성은 이정화의 연구와 강영하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들은 성인의 행복감 구성요인과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구성요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행복감 구성 요인이 발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 성보훈과 윤선아(2010)의 가정을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 존중감, 대인관계가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eehoven, 1994)면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은 일반적인 맥락이나 상황에서의 행복감 구성요인과 다를 것이다. 김종백과 김태은(200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혔다. 이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하여 학교 행복감이 친구관계, 학교활동(교사관계, 환경만족, 학습활동 즐거움, 자기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이 일반적인 행복감 구성요인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과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행복감의 본질이 무엇인지, 행복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예컨대, 강영하, 2006;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그리고 행복감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김경순, 2006; 박숙경, 2003; 박정희, 2007; 설기문, 1990; 유상란, 1988; 이혜미, 김윤희, 2010; Buss, 2000; Fordyce, 1977, 1983)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학교 행복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거나 구성요인을 확인하려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학교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시작할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행복감은 무엇이며,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행복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손인수, 1990; 정범모, 1997) 행복감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김종백과 김태은(200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을 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암묵적 접근(Sternberg, 2000참조)을 통하여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힐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암묵적 접근 방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행복한 친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대전시와 충청남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95명을 대상으로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행복할까요?'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192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작성된 문항들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과 충남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제시된 문항들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절한지를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하고, 평정 평균값이 4이상인 75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문항들을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을 위해 대전시와 충청남도 지역 소재 12개 초등학교 5, 6학년 438명을 대상으로 학교 행복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행복감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평정 척에서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불성실한 응답자와 일부 문항에 대한 무응답자를 제외한 428명이었다.

분석방법

학교 행복감 검사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문항별 기술 통계치,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그리고 문항-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문항 별 평균값이 2이하이거나 4이상인 문항, 표준편차가 .8미만인 문항, 문항 간 상관이 너무 낮거나(r<.2) 너무 높은(r>.6) 문항과 전체 점수와의 상관이 .4이하인 문항, 그리고 MSA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의 anti-image correlation값이 .5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항은 48문항 이었다. 구체적인 요인의 수와 요인 별 문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요인 부하량이 .4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36문항을 최종적인 요인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SPSSPC+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방식으로 직각회전 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 스크리 검사, 요인공통분산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구성된 요인의 수에 대해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7.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적합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CMIN/DF, 적합도 지수(GFI, AGFI, IFI, RMR, RMSEA)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 및 해석

탐색적 요인분석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요인의 수 및 요인별 문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먼저 표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값은 .915로 우수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표 1. 표본 적합도 검증 결과

구 분		측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9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7275.219
	자유도	946
	유의확률	.000

17275.219(df=946, p=.000)로 변수(문항)들 사이에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 값을 1로 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추출된 각 요인의 고유치와 설명분산 및 누적 설명분산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5요인과 6요인 사이에서 고유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누적분산비율을 살펴보면 5요인까지 전체 분산의 약 61%이고 6요인까지는 전체 분산의 67%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 행복감은 구성요인을 다섯 개 요인으로 설정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도 1차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조 및 회전 후 요인행렬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요인이 17.230, 2요인이 2.565, 3요인이 1.990, 4요인이 1.585, 그리고 5요인이 1.146이고 다섯 개의 요인의 누적 설명 분산은 약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각 요인에 대해 낙천주의(1요인),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하 친구관계라 함)(2요인), 자기 존중감(3요인), 배려심(4요인) 그리고 교사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하 교사관계라 함)(5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별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요인 간의 상관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학교 행복감 척도 문항의 1차 요인분석 고유치 및 누적설명 변량

요인	초기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1	19.830	45.069	45.069	19.830	45.069	45.069	6.351	14.433	14.433
2	2.820	6.409	51.478	2.820	6.409	51.478	6.230	14.160	28.593
3	2.418	5.496	56.974	2.418	5.496	56.974	5.540	12.591	41.184
4	2.016	4.582	61.556	2.016	4.582	61.556	5.088	11.563	52.747
5	1.687	3.833	65.389	1.687	3.833	65.389	3.739	8.497	61.244
6	1.178	2.678	68.067	1.178	2.678	68.067	2.773	6.303	67.547
7	1.052	2.391	70.458	1.052	2.391	70.458	1.281	2.910	70.458

추출방법: 주축요인 추출

표 3. 학교 행복감 척도 문항의 회전 후 요인 행렬

	Component				
	1	2	3	4	5
v46	**.569**	.140	.246	.464	.151
v48	**.537**	.418	.265	.316	.328
v55	**.732**	.246	.135	.291	.185
v56	**.637**	.130	.190	.437	.224
v57	**.685**	.191	.329	.119	.305
v58	**.777**	.223	.138	.231	.190
v60	**.752**	.297	.040	.141	.141
v10	.399	**.653**	-.037	.202	-.074
v11	.190	**.720**	.170	.161	.075
v16	.183	**.768**	.233	.093	.088
v17	.335	**.742**	.168	.032	.194
v18	.086	**.612**	.214	.420	.339
v30	.123	**.557**	.107	.346	.062
v20	.155	.093	**.685**	.279	.239
v24	.232	.289	**.618**	.387	.170
v28	.273	.347	**.642**	.220	.110
v27	.153	.401	**.708**	.241	.170
v34	.059	.121	**.738**	.377	-.031
v35	.050	.342	**.593**	.376	.188
v37	-.040	.430	**.461**	.113	.331
v38	.199	.109	**.786**	-.159	.028
v43	.151	.270	**.780**	.179	.063
v54	.446	.268	**.550**	.238	.181
v59	.390	.246	**.614**	.130	.332
v63	.411	.191	**.458**	.251	.358
v66	.107	.220	**.411**	.288	.389
v25	.296	.045	.088	**.639**	.017
v26.	.370	.136	.202	**.600**	.130
v31	.293	.401	.401	**.444**	.161
v33	.357	.302	.246	**.480**	.238
v75	.431	.375	.048	**.464**	.393
v68	.324	.228	.117	.012	**.712**
v69	.442	.108	.166	.197	**.628**
v70	.509	.089	.057	.386	**.593**
v71	.275	.210	.193	.155	**.719**
v73	.480	.224	.087	.398	**.507**
고유값	17.230	2.565	1.990	1.585	1.146
설명변량(%)	15.261	14.276	14.168	12.271	12.119
누적변량(%)	15.261	29.541	43.709	55.980	68.100

추출방법: 주축요인분석
회전방법: Varimax

표 4. 행복감 하위요인 간 상관

	친구관계	자기존중감	배려심	교사관계
낙천주의	.678**	.758**	.818**	.917**
친구관계		.699**	.671**	.554**
자기존중감			.773**	.658**
배려심				.708**

* p<.0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요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잔차들 사이에 모두 상관이 없고 요인들 간에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측정변수들 간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도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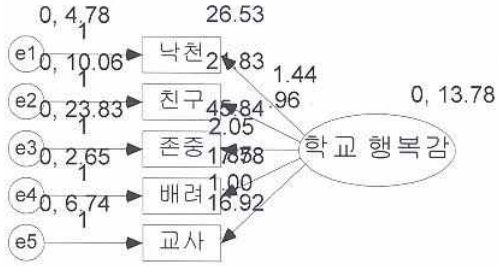

그림 1. 5요인 모형

이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표 5.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p)	자유도	RMSEA	TLI(NNFL)	CFI	GFI
연구모형	.995(.601)	5	.000	0.940	.970	.946
수용기준	p>.05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표 6. 구성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구성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계수
낙천주의	44, 46, 53, 54, 55, 56, 58	.912
친구관계	8, 9, 14, 15, 16, 28	.871
자기 존중감	18, 22, 26, 27, 32, 33, 35, 36, 41, 52, 57, 61, 64	.919
배려심	23, 24, 29, 31, 73	.839
교사관계	66, 67, 68, 69, 71	.886
전체		.996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요인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5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별 문항 번호 및 Cronbach α 값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항 전체의 계수는 .996 그리고 구성요인별로는 .839-.996 이다. 이는 학교 행복감 검사가 신뢰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암묵적 이론의 접근 방법에 따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행복할까요?'라는 질문에 자유 기술식으로 대답하고, 이를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여,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고,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 행복감 검사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1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요인분석을 위한 36문항을 선정하였다.

2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낙천주의, 친구관계, 자기존중감, 배려심, 그리고 교사관계의 5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의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일반적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힌 이정화의 연구와 강영하의 연구와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화의 연구(2005)에서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과 대인관계를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하면, 자아특성(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정환경과 능력은 이정화의 연구에서만, 그리고 낙천주의와 배려심은 이 연구에서만 확인되었다. 한편, 강영하(2008)의 연구와 비교하면 자기 존중감, 친구관계, 낙천주의는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 존중감, 친구관계 그리고 낙천주의는 일반적 행복감이나 학교 행복감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나 가정환경은 학교 행복감에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행복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Veehoven(1994)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을 밝힌 김종백과 김태은(2008)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김종백과 김태은의 연구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학교행복 구성 요인 중에서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학습활동의 즐거움은 본 연구의 낙천주의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과 청소

년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행복감 구성요인이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성보훈과 윤선아(2010)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교행복은 일반적인 행복과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요인이 행복 주요 구성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학교행복 구성요인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배려심과 교사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 학생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행복 정도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학교 행복에 대한 이론은 청소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상향이론보다는 하향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외부환경 그 자체보다는 성격특성이나 태도 또는 경험에 대한 해석이 학교행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 특성이 학교행복을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은 성인이나 청소년들과는 달리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행복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보는 반면에 내적 통제감이나 외향성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교행복을 지수화할 수 있는 학교행복 검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를 기초로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학교행복 검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하 (2006)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교육연구, 5(2). 1-21.

강영하 (2008) 초등학생의 행복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43-166.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학 효과-심리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경순 (200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0-307.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동적 사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종백, 김태은 (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

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민중서림 편집국 (1987)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6)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노화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457-475.

박복남외 (2005) 웰빙에 대한 개념분석. 여성건강, 6(2). 165-178.

박숙경 (2003) 현실요법을 적용한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정희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학급단위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3.

설기문 (1990) 행복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학생연구, 18. 45-65.

성보훈, 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손인수 (1990)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송근영, 이 영 (2011) 부산 시민의 행복 점수 측정을 위한 설문서 문항 개발. 사회과학연구, 27(1). 129-150.

신정인 (2010) 대학생의 대상관계가 긍정적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유상란 (1988)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행복의 조건-14' 의 효과검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명곤 (2011) 행복의 개별적·사회적 조건에 관한 역사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11. 102-126.

이명자 (2008) 대학생의 자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간계: 자율-통제 동기 및 내재·외재 목표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수정, 안신호 (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234.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 903-926.

이우경 (2008)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애,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 분석과 마음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 33-58.

이정미, 이양희 (2008)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 249-268.

이정헌, 양승훈 (2008) 행복학. 엔터테인먼트연구, 9. 237-248.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혜미, 김윤희 (2010) 초등학생 행복감 증진을 위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아동교육, 19(3). 185-200.

이훈구 (1998)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d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23-139.

정범모 (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출판.

최미숙 (2011) TA 성격이론에 의한 유아교사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 및 주관적 안녕감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Argyle, M. (2005) *The psychology of happiness*, 김동기, 김은미(공역). 행복심리학. 서울: 학지사.

Averil, J. R., & More, T. A. (1993) Happiness. In l.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N. Y.: The Guilford Press. 1-12.

Buss, D. M. (2000) The evolution of happiness. *American Psychologist. 55.* 15-23.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Csikszentmihalyi, M. (1997) Living well: The psychology of everyday lif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Diener, (2000) Subjective well-being-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 Y.: Oxford Uni. 34-43.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 Y.: Oxford Uni.. 63-73.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wellbing: Th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Fordyce, M. W. (1977) Developmental of a program to increase personal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511-520.

Fordyce, M. W. (1983) A program to increase happiness: Further stud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83-498.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life 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Kozma, A., Stone, S., & Stones, M. J. (2000) Stability in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subject-wellbeing(SWB): Implications for SWB structure. In Diener E.(Ed.) Advanced in qualities of life injury and research. Dordrecht, The Netherlands: Kouwer.

Lykken, D. & Tellegen, A. (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 186-189.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Schmutte, P. S. & Ryff, C. D.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Re-examining methods and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1. 5-14.

Snyder, C. R. & Lopez, S. J. (Eds.)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 Y.: Oxford University Press.

Sternberg, R. J. (2000)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intelligence*: 3-15.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Strack, F., Argyle, Argyle, M., & Schwarz N. (Eds.) *Subjective Well-Being.* Oxford: Pergamon Press. 7-26.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Vol.3).*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Veenhoven, R. (1994) *Conditions of Happiness.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3월 21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5월 04일
◆ 게 재 승 인 일: 2012년 5월 10일

Exploring the constru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Youngha, Ka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by implicit theory. For this purpose, 192 items for happiness were constructed based on 76 5th and 6th elementary students' free descriptions. Then 75 items were selected for preliminary factor analysis based on item appropriateness by evaluation of 28 elementary teachers. The happiness inventory composed 136 items was administered to 155 students and 36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4 factors-optimism, positive peer-relationship, self-esteem, consideration, and teacher-relationship-were extract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es indicated that 4 factor model of happiness was fit. The reliability(Cronbach's α) was .996.

Key words : school happiness,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education for happiness.

<부록> 학교 행복감구성요인별 문항 번호 및 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낙천주의	44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다.
	46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53	나는 학교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54	나는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한다.
	55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재미있다.
	56	나는 학교에서 기쁠 때가 많다.
	58	학교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
친구관계	8	나는 학교에 친구가 많다.
	9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14	나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하고도 잘 어울린다.
	15	나는 학교에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16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를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나의 의견을 잘 따른다.
	28	나는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자기 존중감	18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기쁘게 한다.
	22	나는 학교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6	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27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믿는다.
	32	나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33	나는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35	나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잘한다.
	36	나는 똑똑하다.
	41	나는 공부를 잘 한다.
	52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은 잘 해결된다.
	57	나는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다.
	61	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신 있다.
	64	나는 맡은 일을 잘 해낸다.
배려심	23	나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24	나는 학교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
	29	나는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31	나는 학교에서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73	나는 다른 학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 오지 않으면 함께 사용하거나 빌려준다.
교사관계	66	나는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한다.
	67	나는 선생님과 놀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68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즐겁고 편하다.
	69	나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마음 놓고 한다.
	71	선생님이 나를 정답게 대한다.

모든 문항은 5점 평정척으로 구성되었음.